

9. 땅속에도 동물 친구들이 살아요!

개발자	윤오복(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)_창작
천동안내소 벽면 전체에 개미, 지렁이, 능구렁이 등 땅속에 사는 동물의 모형과 집을 구현해 이들의 한살이와 생태 등을 해설한다. 이들 외에도 나무에 사는 사슴벌레와 거미, 매미, 벌 등 곤충을 배치해 이들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과 가치를 참가자들이 이해하도록 한다.	
활용대상	유아 ~ 중·고등
활용시기	상시
준비물	없음
소요시간	20분 내외
제작비용	5만원 이하





운영사진1_땅속생물 해설



운영사진2_땅속생물 해설

운영방법

1. 참여자에게 벽면에 설치된 동물 중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.
2. 참여자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동물의 생태부터 설명한다.
3. 해설하면서 퀴즈를 곁들여 재미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4. 마무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도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,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알려준다.

향후방향

우천시 실내 해설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실내용 해설판이므로 향후 야외용 대형 해설판을 설치해 야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참고내용

- 징그러운 지렁이 : 지렁이는 흙을 기름지게 해주는 최고의 농사꾼
- 포악한 능구렁이 : 독이 없지만 살모사를 잡아먹는답니다!
- 농사꾼 앞꾼개미 : 앞꾼개미는 어떤 작물을 키울까요?

주의사항

- 참가자들이 만지면 모형이나 나무껍질이 부서지고 망가지므로 반드시 눈으로만 보도록 주의한다.